

## 중국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와 발전이 시작됩니다 ·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병원 준공 2002년 9월 27일 (금)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병원현장



◇동국대 불교병원 준공테이프 절단식이 9월 27일 정문앞에서 개최됐다. 왼쪽 6번째부터 조계종 원로회의부의장 종산스님, 원로의장 도원스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송석구 총장,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전일본불교회 오타니교신회장.

## 양·한방 협진 최첨단시설 완비 동국대 불교병원 27일 준공식

###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등 사부대중 5천명 참석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병원 이하 불교병원” 건립은 2천만 불자와 동국대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총 1000병상...강북지역 최대**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벽돌 한장 한장을 올려준 1만여명의 불자들이 있었기에 건립될 수 있었다.

동국대는 9월 27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재단이사장 녹원 원로의장 도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송석구 총장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병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국대학 역사여래의 본원을 받들어 병원을 낙성하라 바로 이곳이 한양없는 보배를 지닌 곳”이라며 “모든 중생이 이곳을 찾아 몸을 다스리면 질병이 소멸되고 마음을 다스

리면 번뇌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병원의 특징은 불교교리에 입각한 인간중심의 건축, 국내 유일의 저 체온실 등 최첨단 시설, 호텔처럼 안락한 환경, 병원 정보화의 결정체, 양·한방 협진 시스템 등이다.

인간중심적인 병원’을 기치로 내건 불교병원의 가장 큰 원력은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 환자들이 신체적 고통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선별센터와 환자 치유법회를 여는 법당을 특별히 마련했다.

불교병원은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겠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뉴욕주립대, 중국 중의과학대학 등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양방과 한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협진체제를 구축한 불교병원은 27,626평

### 불교교리 입각해 건축

부지에 대지 8,885평, 건평 3,041평 양방 800베드, 한방 200베드 등 총 1000병상을 갖춰 강북 지역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불교교리에 입각한 건축도 돋보인다. 사법인(四法印)을 상징하여 4개동으로 이루어진 불교병원은 사상제(四聖諦)를 의미하여 4층으로 건립된 외래진료동, 12연기(緣起)를 의미하여 12층으로 건립된 입원병동, 중앙지원동, 장례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출입구는 불교의 실천수행 가르침인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하는 열두기둥 여덟 개를 세웠고 외과의 기둥 10개까지 합해 우주를 상징하는 18계(界)를 표현했다.

병원내부는 호텔처럼 안락한 시설을 자랑한다. 중앙관련을 중심으로 외래진료동, 입원동, 중앙지원동, 영안동의 4개동이 서로 연결되어 외부

### “스님·불자 평생진료 도입”

#### 재단 이사장 녹원스님 인터뷰

▲30년 전부터 불교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준공 소감이 어떠십니까?  
 “수도권 지역에 이와 같은 대형 병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우리 동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전 불자들의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넉넉지 못한 경제 환경에서도 불심양심의 도움을 주신 불자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병원, 암센터등 고양시대 4개 종합병원과 차별화 대책이 있으신지요?  
 “우리 병원의 치료대상은 육체적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고통의 원인이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화합과 화심, 선과 명

### 상, 끊임없는 보리

행을 통하여 중국에는 삼신공히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소개하는 것이 우리병원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재단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하지 않아 개원이 늦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원만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원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아시고 보자시면 반드시 원만한 타결책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불교병원은 스님과 불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으신지요?  
 “이제야 명실공히 우리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불자들에게 평생 진료제도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편안히 이용하시길 말씀드립니다.”



### 개원 왜 늦어지나

#### 정관개정 지연 전문인력 확보 난항

9월 27일 준공된 동국대 불교병원이 왜 곧바로 개원하지 않는가에 불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원래 12월 개원에서 탕리아 내년 3-5월로 미뤄진 가장 큰 원인은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생된 전문의료인력 수급 차질 때문.

현재 이사회에서 병원 직제와 인원등을 규정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전체인력 576명 가운데 280여명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고도 합격여부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나머지 296명에 대한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한 뒤 의료장비 구입과 시험가동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조계종

### 특위, 동국학원, 동국대가 개원을 앞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 이사장, 총장, 의료원장 인사를 앞두고 새관짜기에 들어간 것이며, 불교병원이 결국 회색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특위는 “개원이 늦어지더라도 검증된 인적자원을 확보해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 조계종 승려이사들은 ‘총 총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반응. 송석구 총장은 ‘이사회에 추진결과를 보고했고, 일을 강력히 추진하다보니 오해가 있다’는 얘기.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입장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학교와 병원의 신뢰도와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볼을 보듯한다.

정상개원을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하여 유급위기에 놓인 동국대 의과대 학생회는 “10여억원의 시설관리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학교가 조속한 개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들의 신체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선센터(왼쪽 위), 골수염 백혈병 장기이식등에 꼭 필요한 최첨단 무균실 입구(왼쪽아래)준공식에 참석한 조계종종정법전스님. 뒤로 보이는 건물이 동국대 불교병원 전경(오른쪽 위).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4개동을 연결시킬 수 있게 설계된 드넓은 방원로비(오른쪽 아래).

◇환자들의 신체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선센터(왼쪽 위), 골수염 백혈병 장기이식등에 꼭 필요한 최첨단 무균실 입구(왼쪽아래)준공식에 참석한 조계종종정법전스님. 뒤로 보이는 건물이 동국대 불교병원 전경(오른쪽 위).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4개동을 연결시킬 수 있게 설계된 드넓은 방원로비(오른쪽 아래).

로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배치돼 있다.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시설은 국내 병원 중 가장 우수하다. 16개의 수술실과 국내 최초로 심장수술을 위한 저체온(15℃이하) 수술실을 국내 처음으로 갖추었으며, 골수염, 백혈병, 장기이식 등에 꼭 필요한 무균병실 등이 있다. 성인병, 노인병 전문 클리닉을 개설, 진료시스템과 연결된 종합건강센터와 무수한 응급환자들이 드나들 응급의료센터도 성인실과 소아실로 구분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든 병실 안에도 화장실을 갖추어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병실의 병문안도

각 병동에 마련된 3개의 DAY ROOM에서 만날 수 있어 다른 환자들이 인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저체온 수술실 국내유일**

정보화 시설도 수준급. 동국대 의대 한의대 학생들이 수술실의 수술 장면을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강의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의화전송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장례식장은 VIP용 4실을 비롯하여 일반실 14실, 총 18실을 두고 있으며, 불교식 장례를 위한 영정단이 기존 병원보다 넓은 것이 인상적이다. 송석구 총장은 “동국대 불교병원에서 드는 자 모두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탐진치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병원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향기롭게 은혜있는 거룩한 도량으로 영원히 간직되도록 불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가사취장 6가지 색상 육바라밀의 뜻 담겨



의제실무연구회가 디자인한 취장은 지혜의 눈을 상징하는 타원 모양으로 가사에 부착하게 된다. 크기는 가로 6.5cm 세로 4.2cm이며, 타원형 안의 원은 지름 2.9cm다.

여섯 가지색상은 육바라밀에서 착안한 것으로, 견덕(가사색)은 ‘인욕’ 중덕(녹색)은 ‘정진’ 대덕(적색)·사진(아래)은 ‘열정’ 중덕(황색)은 ‘종요’ 종사(청색)는 ‘용기’ 대종사(황금색)·사진 위는 ‘포용’을 상징한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화(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상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을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허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안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같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열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모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배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충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